| 현불논단 |

최상 인격의 경지, 열반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 열반재일
열반, 죽음 아닌 번뇌가 없는 상태
'대반열반경'엔 인간적 풍모 보여줘

마지막 공양 올린 춘다를 위한 변호
"최후 보시한 공덕은 매우 수승하다"
만찬서 유다 저주한 예수와는 차별돼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 연민이 담겨

음력 2월 15일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재일이다. '열반'은 죽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불어 끈다(吹滅)'는 뜻으로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 즉 최상의 경계를 말한다. 부처님의 열반 당시를 잘 묘사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대반열반경〉이다. 〈대반열반경〉은 장아함 2권~4권에 해당하며, 부처님께서 만년에 열반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영취산을 출발해 코티 마을~나다카 마을~상업도시 베살리~입멸 장소인 쿠시나가라에 도착해 열반할 때까지의 여정을 그대로 묘사한 경전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의 인간적인 풍모가 드러나 있는데, 내용을 보기로 하자.

부처님께서 베살리를 지나면서 아침 일찍, 발우를 들고 마을로 탁발하러 나갔다. 베살리 마을을 돌며 탁발 공양을 마치고 마을을 나오면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부처님께서 마치 코끼리가 사물을 바라보듯 지긋이 베살리 마을을 돌아보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나는 늙고, 몸이 많이 쇠하였다. 아난아! 나의 육신은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 끈에 의해 매여 있는 것처럼 겨우 움직인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할지라도 이별하고 헤어지는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머지않아 여래는 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여래는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쿠시나가라로 향하는 과정 중에 파마 마을에 도착한다. 부처님께서 마을의 대장장이 춘다의 소유지인 망고 동산에 머물고 계셨다.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청을 하여 제자들과 함께 춘다의 집으로 갔다. 춘다는 부처님께 스카라 맛다바라는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신 후, 피가 섞인 설사를 계속하셨다. 병이 조금 차도가 있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쿠시나가라로 향해 출발하자고 말씀하셨다.

이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쿠시나가라로 향해 가는 동안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을 모이게 한 뒤 교단을 염려하고, 마지막 진리를 설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여러 비구들이 '춘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입멸했다' 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아난아, 춘다에게 이런 비난이 쏟아진다면, 춘다에게 이렇게 위로하여라. '춘다여, 조금도 후회할 것 없소. 당신이 올린 최후 공양을 드신 뒤 부처님께서 입멸하셨다는 것은 당신에게 경사스러운 일이오. 부처님께 최후로 보시한 공덕은 다른 어느 때 공양보다도 매우 수승한 공덕이오. 그 공덕과 복덕이란 장수하며, 다음 세상에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안락을 누리며, 명예를 얻고, 천계에 태어날 수 있는 복덕이다.' 아난아, 이렇게 춘다를 위로하고 변호해 주어라."

아무리 위대한 성자이지만,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쏟아질 비난까지 염려하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미국 철학자 월터 카우프만(1921~1980)은 부처님의 최후 식사와 예수의 최후 만찬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만들어 준 음식을 맛있다며 고마워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춘다의 공양으로 인해 여래가 열반에 들었다' 고 춘다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12인의 제자 중 한명인 유다를 저주하며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분명히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마태복음〉)' 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듯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 다른 종교는 교주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지만, 불교는 부처님 열반을 기준(佛紀)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최고의 완성, 그리고 최상의 인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열반!

社 說

'약사여래불'될 부다가야 보건소

"만일 누군가 내게 공양하고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내게 베푼 그 복과 덕은 병자를 돌본 것과 다름이 없으리."

〈증일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은 병자를 잘 간호하고 치료를 돕는 것은 대단히 큰 공덕을 쌓는 일이며, 병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마치 부처님을 간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셨다.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의 원력으로 2월 27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 보건소가 개원했다.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보건소의 개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병자를 돌보는 큰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소 개원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염원하며 불교중흥의 발판이 될 거룩하고 역사적인 분황사가 건립되면서 시작됐다. 지역 공헌을 고심하던 중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건립을 추진했다.

운영을 맡게된 전국비구니회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반영,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취업훈련과 문화공간,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추후 한글학교와 재봉, 사찰요리 교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작은 원력 하나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뭇 생명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자양분으로 자라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다가야 보건소가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장소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약사여래불이 되길 희망한다. 부처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비춰 모든 생명이 건강하길 기원한다.

남북 교류 물꼬, 불교가 트자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맞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남북한 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민추본이 2월 28일 발표한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추본은 오는 6월 초 임진각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 전쟁종식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기념법회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불교계 실천적 노력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법회에 앞서 민추본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민추본은 3~5월을 평화기원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평화기원 행사도 진행하며 평화기원 동시 타종, 연등회 문화마당 평화부스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전 70주년 평화기원 금강산 평화순례길 걷기도 열린다. 2021~22년 스님들의 금강산 순례길을 조명, 발굴하기 위한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사업의 성과를 이어 순례길을 일부 걷는 시범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 고성 접경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관련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열린다.

이밖에도 남북불교 교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e-book 사진전을 비롯해 북한 지역 일제강점기 8대 본산 관련 문헌조사, 남북불교 교류 대표회담 등이 추진된다.

통일 사업은 인내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인내를 감내하는 이유는 통일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는 올해 계묘년은 남북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에 대한 물꼬를 불교계가 추진하는 일련의 통일 사업들이 텄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원력이 가진 강인한 에너지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소식은 이웃나라까지 알려졌습니다. 하루는 빔비사라왕이 숲 속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싯다르타를 찾아왔습니다.

"태자가 출가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소. 태자처럼 젊고 기품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고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오.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마음에 드는 땅을 드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드리겠소."

그러나 싯다르타 태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어 출가를 하셨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고타마 태자는 6년의 고행 끝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었고, 부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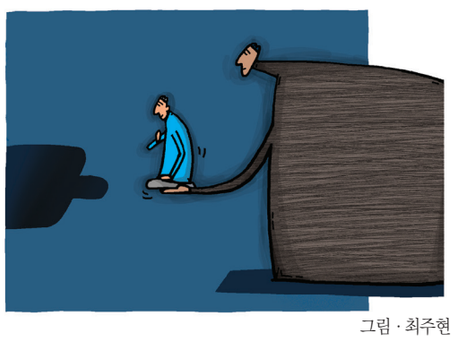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바라던 목적을 성취한 지금의 나를 보라.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비록 역경에 처했더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는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명 선장은 거센 파도에 도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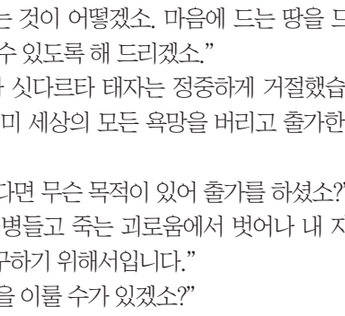
원력은 내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되겠다는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야 말로 나만의 것이요 나의 몫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는 부처님의 소원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세우지 않은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도전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불퇴전의 정신으로 이루었습니다.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인생은 결정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력은 역경을 기쁨으로 만들어 낼 수는 강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